

사진 속 어제와 오늘



한양대 박물관 제공

1972

교복 세대 수험생의 한양대 입학시험



1985

지금은 없어진 체력장 시험 중 오래 매달리기



1989

자녀를 시험장으로 들여보낸 아버지가 부인의 등에 올라서서 대학 이문이 저인 간판에 엽을 붙이고 있다.

대학 입학시험

글 조보희 기자 ·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

대학 입학시험은 수험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겪는 진통입니다. 세상 풍파를 겪은 부모의 간절함은 부모 품에서 자란 수험생의 그것보다 더 절박하게 표현됩니다. 용하다는 입시설명회는 넓은 체육관이라도 복도까지 가득 메우고 기도발이 좋다면 설악산 꼭대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원하는 대학 진학은 치열한 세상을 사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. 세월이 흐르고 입시제도가 수시로 변해도 명문대라는 좁은 문을 향한 치열함은 늘 한결같습니다. 대학 입시 절 풍경을 모아봤습니다.

1992



한양대 원서접수 마지막 날 접수장에 몰린 수험생들



2002

대자보 합격자 명단에서 합격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수험생과 어머니



2006

설악산 고지대에 있는 봉정암 석가사리탑에서 기도하는 학부모들



2011

풍문여고 시험장에서 기도하는 수험생과 고문 뺨 학부모



성균관대에서 농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



2016

덕성여고 시험장으로 수험생을 들여보내는 학부모



2019